

17~18세기 完營 출판의 간행양상과 특징*

- 자치통감, 주자대전, 동의보감을 중심으로 -

The Characteristics of Wanyeong Publication in the 17th and 18th Centuries

- Focusing on *Jachitonggam*, *Jujadaejeon*, and *Dongeuibogam* -

金昭姬 (Kim, So-Hee)**

◁ 목 차 ▷

1. 머리말	3. 사례를 통해 본 완영 출판의 일면
2. 17~18세기 완영 인쇄문화의 특징	3.1 「자치통감」과 「주자대전」
2.1 완영 책판의 대상과 범주	3.2 「동의보감」과 의서 간행
2.2 17세기 경향성과 특징	4. 맺음말
2.3 18세기 경향성과 특징	<참고문헌>

< 초 록 >

이 논문은 冊板目錄 14종에 수록된 112종의 서적을 대상으로 17-18세기 完營 인쇄 문화의 경향성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완영 출판의 다양성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이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17-18세기 완영 인쇄 문화의 경향성에 관한 내용이다. 완영책판은 17세기 39종, 18세기 73종으로 18세기의 간행량이 대폭 증가되었다. 주제별로 살펴보면 17세기에는 문집의 비중이 압도적인 반면, 18세기에는 전 분야에 걸쳐 고루 간행이 이루어졌다. 특히 문집간행을 살펴보면 17세기에는 전라감사로 임명된 노론계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1680년대에 간행량이 증가한 반면, 18세기에는 1710년대와 1770년대가 두드러진다. 그러나 왕명에 의해 간행된 문집류를 제외한 사적인 성격의 문집간행은 17세기 후반에 증가하기 시작하여 18세기 초까지 지속되다가 점차 감소되면서 18세기 중반 이후에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요인으로 조선후기 문중이나 서원을 중심으로 문집 간행이 활성화되고, 고위 관료들은 다양한 금속활자로 문집을 인출했던 상황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완영본을 사례로 한 인쇄 문화의 다양성에 관한 내용이다. 「자치통감」, 「주자대전」, 「동의보감」은 완영을 대표하는 서적으로 17세기에 왕명에 의해 간행된 이후 여러 차례 보각, 개각되었다. 현재까지도 책판이 잘 보존되어 있지만, 해당 책판이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간행된 것인지 등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연구가 전무하다. 본고에서 밝힌 각 서적의 간행정황을 현전 목판과 접목시킨다면 개별 서적은 물론 완영 출판문화에 관한 다양한 소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要語: 冊板目錄, 完營, 出版文化, 印刷文化, 「資治通鑑」, 「朱子大全」, 「東醫寶鑑」

* 이 논문은 <한국고문서학회 학술대회 - 조선시대 전라감영의 역할과 복원 및 활용 ->(2015. 11. 13.)에서 발표한 “책판목록을 통해 본 조선후기 완영의 출판문화”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임.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연구원(ksh3725@hanmail.net)

접수일: 2017년 6월 9일 최초심사일: 2017년 6월 16일 심사완료일: 2017년 6월 17일

<ABSTRACT>

This paper is to examine printing culture of Wanyeong in the 17th century to 18th century using 112 kinds of books listed in the 14 categories of Chekpan Mokrok, and to search for the variety of Wanyeong printing. The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is paper discusses the trend of Wanyeong printing culture in the 17th and 18th centuries. While 39 kinds of Wanyeong printing were published in the 17th century, 73 kinds of it were published in the 18th century, a huge increase. In the 17th century, most of Wanyeong books were collections of works of specific writers. But, in the next century, various kinds of books were published in various fields. In particular, publication of personal collections of works increased in the 1680s mainly because of publication of such books by dignitaries of the Noron Faction appointed as Governors of Jeolla provinces in the 17th century. In the 18th century, publication of such books increased in the 1710s and 1770s. However, except for the cases where such books were published by the royal order, publication of such books by private scholars began to increase in the latter part of the 17th century until the early part of the 18th century. But, from that time, the number of such books kept decreasing, disappearing since the mid-18th century. Because of that, publication of anthologies by big families and seowon became active. And, high government officials would publish their collections of works using metal types.

Next, this paper deals with variety of printing culture using Wanyeong printing. *Jachitonggam*, *Jujadaejeon*, and *Donggeuibogam* are representative books printed by Wanyeong. Since they were published by the royal order in the 17th century, they were repeatedly reprinted afterwards. Book prints have been kept up to now. But, there has been no research on when, in what situations, and how those books were printed. It is expected that if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about the situations where those books were published are connected with remaining wood blocks, they will provide various sources on Wanyeong printing culture.

Key words: Chekpan Mokrok, Wanyeong, printing culture, *Jachitonggam*, *Jujadaejeon*, *Donggeuibogam*

1. 머리말

전근대시기 지방의 출판문화를 논함에 있어서 전라도와 경상도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전라도와 경상도는 타 도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많은 양의 서적을 간행하여 지역사회의 지식보급에 앞장섰던 곳이다. 일례로 조선 전기 지방에서 간행된 책판 총 986종¹⁾의 현황을 기록한 『고사촬요』를 살펴보면 경상도와 전라도가 각기 387종과 336종으로, 황해도 78종, 평안도 67종, 강원도 60종, 충청도 37종, 함경도 19종, 경기도 2종에 비해 서적간행량에 있어서 독보적 우위를 차지한다.

이 중에서도 특히 전라감영이 소재한 전주는 336종 중 20%에 달하는 67종의 책판을 간행했다. 이는 경상도 내에서 경주가 61종, 진주가 50종의 책판을 간행했던 상황과 비교해보면, 전주가 단일지역 중에서는 전국 최대의 출판지였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전주가 최대 출판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경상도의 경우에 감영의 위치가 상주, 경주, 대구 등으로 여러 차례 변경되었던 반면에 전주는 조선시대 내내 감영이 위치했던 곳으로 그 지역의 정치, 경제, 행정의 중심지이자 문화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전주는 인근의 남원과 더불어 전국 최고 품질과 최고 수량의 한지를 생산하였고, 판각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이 구비되어 있었다. 또한 타도에 비해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고, 사방으로 통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했던 지역이었다.

조선시대 출판의 메카였던 전주에 주목하여 그간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지만²⁾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이룩한 출판 중심지로서의 명성은 완판방각본이나 태인방각본에 떠밀려 부각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는 아마도 전주지역의 방각본 서적, 특히 소설류에 연구가 집중되었던 탓이기도 하다. 또한 전주를 포함한 완영의 인쇄 문화 연구가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을 밝히거나 완영본 개개에 대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내지 못한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 지역에서 이루어진 출판문화의 특질을 밝히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서 간행된 개별 서적들을 대상으로 간행시기, 간행배경 및 간행과정 등을 꼼꼼히 살펴본 후,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개별 판본 연구에 소요되는 시간은 물론 구체적인 기록이나 현전본의 부재 등과 같은 한계로 연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1)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선조 18년(1585)에 간행된 『고사촬요』에 수록된 책판의 총 수량은 988종으로 알려져 왔으나(김치우, 『고사촬요 책판목록과 그 수록 간본 연구』(서울: 아세아문화사, 2008), 13.), 실제로는 988종이 아닌 986종으로 확인되었다(김소희, “조선전기 전라도의 출판문화 연구 - 지방관서의 간행양상을 중심으로,” 『서지학연구』 제62집(2015. 6), 366.).

2) 강혜영, “朝鮮朝 全州地方의 木版印刷 文化考,” 『국회도서관보』 20(1983), 47-59.; 이태영, “전라감영의 인쇄문화가 지역사회의 끼친 영향,” 『향토사연구』 13·14(2002), 131-138.; 이태영, “완판본과 완영목판,” 『기록문화의 땅, 전주』(전주: 전주역사박물관, 2006), 49-76.; 최지선, “조선시대 湖南觀察營本에 관한 서지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2007.』; 홍성덕, 김철배, “전주향교 完營冊板 보존현황 및 활용방안,” 『고문화』 65(2005), 81-106.; 옥영정, “조선시대 完營의 인쇄문화에 대한 고찰,” 『서지학연구』 제50집(2011), 433-470.

그럼에도 본고는 상기 방법론을 준용하여 17~18세기에 완영에서 간행된 개별출판물의 간행 관련 사항을 조사, 정리한 후 이를 주제별, 시기별로 구분하여 완영 인쇄 문화의 경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아울러 완영에서 간행된 각종 서적 중 상징성을 띠는 「자치통감」, 「주자대전」, 「동의보감」의 구체적인 간행 과정을 통해 완영 인쇄문화의 다양성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2. 17~18세기 완영 인쇄문화의 특징

2.1 완영 책판의 대상과 범주

조선 전기에는 각 고을에 소장된 책판의 현황 및 파손과 유실 상태까지도 해유문서에 정확히 기재하거나,³⁾ 각도의 감사들이 자기 마음대로 서적을 간행하거나 다른 지역에 있는 서적을 다시 간행하여 재력을 낭비하는 일이 방지하기 위해 冊版置簿의 법을 제정함으로써⁴⁾ 지방의 책판과 서적을 관리해왔다.

이처럼 철저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발견된 책판목록은 조선전기의 「고사촬요」를 비롯하여 18세기 이후에 작성된 책판목록 등 20여종에 불과하다. 이 중 전라도 지역의 책판을 수록하고 있는 책판목록은 기존에 알려진 13종⁵⁾과 필자가 이번에 새롭게 발견한 1종⁶⁾을 포함하여 총 14종이다. 그러나 일부 책판목록의 작성시기 비정에 있어서 짧게는 50년에서 길게는 100년 이상의 오차가 발견되었고 필자의 조사에 앞서 경상도 지역 책판을 수록한 책판목록만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지만,⁷⁾ 여전히 과거의 오류를 답습한 채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책판목록의 시기비정은 일부 서적의 간행시기를 밝히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에 필자가 그동안 조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책판목록의 작성시기를 <표 1>과 같이 잠정적으로 수정한 후 완영책판 간행의 경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조선왕조실록」 세종14년(1432) 8월 3일 기축 2번째기사.

丁酉朔, 吏曹啓: “請各道各官所在冊板, 守令於新舊交代解由, 開寫某冊幾板, 明白傳掌. 其等內破毀遺失板子, 依數充補傳掌, 以爲恒式.”

4) 「조선왕조실록」 세종14년(1432) 8월 3일 기축 2번째기사.

5) 정형우, 윤병태 편, 「韓國冊板目錄總覽」(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1979). ; 정형우, 윤병태 편, 「韓國의 冊板目錄(上)·(下)·(補遺·索引)」(서울: 보경문화사, 1995).

6) 이 책판목록은 진주 단목 진양하씨 창주후손가에 소장된 자료이다(「고문서집성(48) - 진주 단목 진양하씨 창주후손가편(2)」,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00). 1-14.). 본고에서는 「영호열읍소재책판목록①」이라고 지칭했다. 행초로 필사되어 있고 수결 등의 표시로 볼 때 관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진주조에 3건, 고성조에 3건의 서적이 추가되어 있고 해당 서명에 ‘ㅊ’ 모양을 그어 삭제표시를 하였다. 「영호열읍소재책판목록②」는 해당 서적이 삭제되어 있고 淨書된 점으로 보아 ①을 저본으로 교정한 책으로 추정된다.

7) 조정화, “영남지방 책판목록에 대한 고찰 - 작성시기 고증을 중심으로 -,” 「도서관」 51 (1996), 95-125.

<표 1> 완영책판이 수록된 책판목록

no.	서명	작성시기		소장처 표기방식	구분	총책판수
		수정	선행연구			
1	책판치부책	1740	左同	전주	56종	56종
2	완영책판목록	1759	左同	전주	81종	81종
3	누판고	1796	左同	호남관찰영, 전주부 위봉사, 석계서원	25종/4종 13종/2종	44종
4	각도책판목록①	1784-1786	1778년경	전라감영	44종	44종
5	각도책판목록②	-1840	左同	전주 / 私板	28종/33종	61종
6	영호열읍소재책판목록①	1789-	미발견	전주	16종	16종
7	영호열읍소재책판목록②	1798-	1760년경	전주	16종	16종
8	고책판유치고	1778-1800	-1776	전주군	52종	52종
9	완영객사책판목록	-1854	-1885	완영객사, 私板	38종/38종	76종
10	용호한록	1850-1896	左同	완영객사, 석계서원, 私板	40종/2종/33종	75종
11	책판록①	1834-	정조 초	완영 위봉사, 석계서원 私板	28종 16종/2종 25종	71종
12	책판록②	1846-	x	완영, 私板	32종/34종	66종
13	삼남소장책판	1842-	1743년경	전주읍내객사 위봉사, 송광사 석계서원, 화산서원 私刊	24종 17종/1종 7종/2종 5종	56종
14	제도책판록	1837-	1750년경	전라감영, 감영新備 위봉사, 남고사, 송광사 석계서원, 화산서원 南門外私板, 西門外私板	25종/8종 17종/2종/1종 2종/2종 13종/4종	74종
총 계						714종

완영책판은 완영에서 간행한 책판을 말하는데,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각각의 책판목록마다 완영책판에 대한 기술에 있어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전주 條에 완영책판을 포함시키거나, 전주가 아닌 완영(또는 완영객사, 전주읍내객사, 전라감영)으로만 기술하거나, 때로는 완영의 하위 범주에 위봉사, 남고사, 송광사, 석계서원, 화산서원, 사관 등의 항목을 별치하여 구분하기도 하였다. 완영책판과 전주부책판을 별도로 구별한 「누판고」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책판목록에서는 완영과 전주부의 간행물을 동일시했다.

완영 관련 책판목록을 살펴볼 때 주의할 점은 완영에서 간행한 서적이 책판목록에 따라 위봉사, 송광사, 석계서원, 화산서원 등에 포함되어 있다가 이후 완영이나 전라감영, 전주, 완영객사, 완영, 전주읍내객사조에 다시 편입된 경우이다. 이는 해당 책판이 감영에서 간행된 이후 사찰이나 서원에

보관되어 오다가 객사 서편에 있던 책판고로 이동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⁸⁾ 그러나 『孤竹遺稿』를 대상으로 책판목록의 선후에 따라 장관처를 나열해보면 1683년(숙종 9)에 간행된 책판이 『책판치부책』(1740)에서는 위봉사조에 있다가, 위봉사조를 별도로 기재했던 『누판고』(1796)에서는 전주부에, 『제도책판록』(1837-)과 『삼남소장책판목록』(1842-)에서는 다시 위봉사조에 편입되어 있다.

책판목록의 기록만 쫓다보면 완영에서 간행된 책판이 위봉사에 보관되었다가 전주감영으로 옮겨졌고, 다시금 위봉사로 이동되었다는 결론에 달하지만, 실제로 『고죽유고』는 감영에서 간행되었다가 보관상의 이유로 위봉사로 이동한 후 줄곧 그 곳에 소장되어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18종 중 5종의 서적에 나타나는데, 이는 책판목록이 실제 조사를 토대로 작성되었느냐 과거의 책판목록을 저본으로 등사한 것이냐의 등의 원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러가지 정황상 기재 당시의 오류가 아닐까 추정된다. 아울러 이러한 상황은 위봉사 이외의 사찰과 서원 조에 기재된 책판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대상에는 최초 간행처에 착안하여 사찰과 서원에 소장되어 있던 책판까지도 포함하였으며, 19세기 이후의 책판목록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판(사간)의 경우 완영본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어 제외하였다.

이러한 기준에서 14종의 책판목록에 기재된 전주부 관련 책판은 총 788종이다. 이 중 사판(185종)을 제외하면 603종이며, 중복된 서적까지 제외하면 모두 118종⁹⁾이다. 여기서 본고의 연구범위인 16세기 1종, 19세기 5종을 제외한 17-18세기에 간행된 서적은 모두 112종이며, 이들 서적을 대상으로 각 시기별 인쇄 문화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¹⁰⁾

2.2 17세기 경향성과 특징

17세기의 완영책판은 총 39종으로, 四部로 분류하면 경부 4종, 사부가 4종, 자부가 11종, 집부가 20종이다. 유문별로 세분하면 경부는 예류 3종, 소학류 1종이며, 사부는 편년류 1종, 조령주의류 1종, 전기류 1종, 정법류 1종이며, 자부는 유가류 2종, 병가류 3종, 농가류 1종, 의가류 4종, 유서류 1종이며, 집부는 총집류 2종, 별집류 18종이다. 이를 통해 볼 때 간행량은 별집류인 문집이 압도적이며, 병가류와 의가류의 서적이 각기 3종으로 그 다음을 차지한다.

『고사촬요』에는 조선전기에 전라도에서 간행된 별집류 서적은 총 55종이며, 이 중 전주에서 8종이 간행되었다. 8종 중 東人의 문집은 고려의 이숭인과 이색, 조선의 소세양과 권근의 문집으로 모두

8) 객사 내 책판고의 존재와 그 위치에 관해 이동희, “전라도 완영책판의 역사문화적 의미와 활용방안,” 『전주향교 장관각 목판정리사업 최종보고서』(2005), 115에서는 “19세기 전주모습을 담은 전주박물관소장 병풍형지도에 보면 객사 좌편(서편) 담자락을 따라 책판고가 배치되어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이 외에도 전라감영의 서적 인출을 위해 종이를 공급했던 紙所와 인출을 직접 담당했던 印出房의 위치에 관해서도 이 글을 참조할 수 있다.

9) 서명은 동일하지만 책판목록에 따라 간행시기가 다른 책판을 수록한 경우는 이관으로 간주하였다.

10) 최지선, “조선시대 湖南觀察營本에 관한 서지적 연구,”(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2007)는 모두 69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4종에 불과하다. 조선 전후기를 막론하고 관직을 이용해 서적을 간행했던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었고, 관직을 이용해 어떠한 서적을 찍었는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조선 전기 개인 문집 간행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않았다가 17세기 이후에 증가하기 시작하여 조선후기에 이르면 족보와 함께 최대 출판량을 기록할 만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이 시기 완영의 간행물 속에서도 문집 간행이 증가하는 일반적인 현상을 포착할 수 있다.

간행물의 시기별 분포를 살펴보면 1620년대 1종, 1630년대 2종, 1640년대 2종, 1650년대 1종, 1660년대 1종, 1670년대 3종, 1680년대 6종, 1690년대 2종으로, 1680년대의 간행량이 두드러진다. 가장 많은 간행이 이루어진 1680년대는 경신대출척이 일어난 1680년부터 기사환국이 있었던 1689년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노론 정국 하에 있던 때이다. 이 시기에 간행된 서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申用漑(1463-1519)의 『이요정집』(1682)과 成文濬(1559-1626)의 『창랑선생집』(1682), 崔慶昌(1539-1583)의 『고죽유고』(1683), 李敬輿(1585-1657)의 『백강선생집』(1684), 李敏迪(朝鮮, 1625-1973)의 『죽서집』(1684)이다. 이들 서적은 모두 노론에 의해 편찬, 간행되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요정집』과 『창랑선생집』은 신용개의 후손인 신익상이, 『고죽유고』와 『백강선생집』 및 『죽서집』은 백강의 손자이자 죽서의 아들인 전주이씨 이사명이 간행한 것으로,¹¹⁾ 이들 모두 전라감사로 임명된 노론계 인사들이다.

조선시대의 지방관들은 혈연과 학연 등 복합적이고 중첩된 관계망을 기반으로 많은 서적을 간행했는데,¹²⁾ 17세기 후반 전라감사에 부임한 신익상과 이사명도 관찰사라는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지극히 개인적인 성격의 책을 간행한 후에 경기전의 속사였던 위봉사에 책판을 보관하였다. 이러한 사례로 1683년에 간행한 최경창의 『고죽유고』는 손자 崔振海가 병란 중에 산일되고 남은 가장본을 바탕으로 『崔白集』 등에서 유문을 수집하여 편찬한 책으로, 1683년 최진해의 막내 아들인 崔碩英이 淮陽府使로 나갔을 당시에 저자의 甥孫인 李敏敍의 도움을 받아 목판으로 간행한 책이다.¹³⁾ 최석영이 이민서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었던 것은 최석영의 증조이자 이 책의 저자인 최경창이 바로 이경여의 외조부이기 때문이다. 이경여의 아들이 최석영에게 도움을 준 이민서이며, 이민서의 형은 이민적이며, 이민적의 아들이 바로 전라감사로 근무하던 이사명이었다. 아울러 김집의 문하에서 저자와 함께 동문수학을 했던 송시열이 서문을, 송시열의 제자였던 이민서가 발문을 작성했던 것이다.

1689년 기사환국에서 1694년 갑술옥사에 이르기까지 남인이 득세했던 시기에 전라감영에서 간행된 서적은 1693년에 간행된 洪澗의 『忍齋先生文集』 1종만이 확인된다. 이 책은 1693년 2월에 저자

11) 신익상은 1681년 10월에서 이듬해 9월까지, 이사명은 동년 9월에서 1685년 5월까지 전라감사에 부임하였다(이동희, 『조선시대 전라도의 감사·수령명단-전북편-』 (전주: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1995), 11. 참조).

12) 조선 후기 지방관의 주도하여 문집을 간행하는 관행이 정착되어 가는 과정과 지방관의 의식속에 문집 간행을 사적인 행위로 인식했던 모습 및 문집 간행을 주도한 지방관과 문집의 저자와의 관계가 부모, 형제, 배우자, 자식, 교우, 문인의 6가지 기본 관계망과 이러한 관계망이 중첩되면서 또 다른 광의의 가족적 범주로 확대되어 나간 현상들을 엿볼 수 있다(손계영, “지방관과 선조 문집 간행,” 『영남학』 15(2009), 229-269).

13) 한국고전번역원 『고죽유고』 해제(<http://db.itkc.or.kr>) 참조.

의 외적인 朴慶後가 전라감사로 부임한 후 노론의 영수 송시열의 서문(1668년)을 누락시킨 채로 간행했다.¹⁴⁾ 갑술옥사 이후 다시 노론 정권이 된 이후로 처음으로 간행된 문집은 1695년에 전라감사 李秀彦(1636-1697)이 간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洪葦의 『淸溪先生集』이다. 이 책은 과거 저자의 증손인 洪錫과 김수항 및 김창협이 산정을 거쳐 간행하려다 중단되었던 책으로, 당시 김집의 문인이었던 李東稷의 아들이자 송시열의 문인이었던 이수언이 노론의 재집권을 계기로 간행을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완영에서는 지방민의 통치에 필요한 법률서와 백성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농서와 의서를 간행했는데, 이러한 상황은 조선 전기의 감영 간행물에서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런 류의 서적은 중앙의 명을 받아 감영이 직접 간행을 주관하거나, 도내 계수관적 역할을 했던 대읍이 중심이 되어 간행되었다. 병가류 서적의 경우에는 조선전기는 『陣圖』(전주, 광주, 순천)와 『火砲冊』(광주)을 간행한 사례 밖에 확인할 수 없었던 반면, 병란 이후 국방 수비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전라도 지역에서만 하더라도 武經七書와 七書直解, 『歷代將鑑博議』, 『再造藩邦』, 『兵學指南』, 『續兵將圖』 등의 다양한 병법서들이 간행하였다. 이러한 책은 대개 완영 주도하에 이루어졌고, 그 밖에 左營이 소재한 운봉과 우수영이 있던 해남, 金城山城이 있던 담양, 좌수영이 있던 순천 및 제주 등 군사 요충 지역이 중심이 되어 간행되었다.¹⁵⁾

17세기 완영 간행의 또 하나의 특징은 『강목』, 『주자대전』과 같은 거질의 서적 간행과 『동의보감』(2회)과 『의학입문』 등 의학서적의 간행을 들 수 있다. 이들 서적의 간행과 관련해서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상으로 17세기에 간행한 서적을 시기순으로 나열하면 <표 2>와 같다.

<표 2> 17세기 완영간행물(간행시기순)

no.	四部	유문	정식서명(한자)	간행시기	책관보관처	간행방식	전라감사
1	子部	儒家類	聖學輯要	1575-1740	華山書院		
2	集部	總集類	東文選	1600년대			
3	子部	醫家類	診解胎產集要	1608-1740			
4	子部	醫家類	東醫寶鑑(2)	1692-1711(숙종 18-37)		왕명	
5	集部	別集類	牛溪先生集	1621(광해군 13)			成文濬
6	經部	禮類	喪禮備要	1621-1740	石溪書院		
7	集部	別集類	玉溪先生文集	1633(인조 11) 경			
8	子部	類書類	芝峯類說	1634(인조 12)			
9	集部	別集類	朱子大全(1)	1635(인조 13)		자원	元斗杓
10	集部	別集類	仙源遺稿	1640(인조 18)			

14) 洪暹, 『忍齋集』, 忍齋先生文集序(洪可相).

15) 김소희, “조선전기 전라도의 출판문화 연구-지방관서의 간행양상을 중심으로,” 『서지학연구』 제62집(2015. 6), 368-370.

no.	四部	유문	정식서명(한자)	간행시기	책관보관처	간행방식	전라감사
11	經部	禮類	疑禮問解, 續解	1646(인조 24)	石溪書院		鄭維城(1596-1664)
12	集部	別集類	休素集(2)	1648(인조 26)	남고사		李時楷
13	子部	醫家類	醫學入門	1648(인조 26) 이전		왕명	
14	集部	別集類	挹翠軒遺稿	1651(효종 2)			沈澤
15	子部	農家類	農家集成書	1656(효종 7)		왕명	趙啓遠(1592-1670)
16	子部	儒家類	內訓	1656(효종 7) / 1727(영조 3)		왕명	
17	史部	編年類	資治通鑑綱目訓義(1)	1657(효종 8) 이전		왕명	
18	子部	兵家類	武經七書[孫武子直解]	1657(효종 8) 이전		왕명	
19	子部	兵家類	武經七書[尉繚子直解]	1657(효종 8) 이전		왕명	
20	子部	兵家類	武經七書[唐太宗李衛公 問對直解]	1657(효종 8) 이전		왕명	
21	經部	禮類	儀禮經傳通解	1657(효종 9) 이전	【在大邱】		
22	史部	傳記類	宋名臣言行錄	1666(현종 7)			閔維重(1630-1687)
23	集部	別集類	東國李相國全集	1669(현종 10)	【在玄風】		
24	集部	別集類	澤堂先生集	1674(현종 15)			李東稷(1611-1675), 宋時杰
25	集部	別集類	東岳先生集, 續集	1675-1680(숙종 1-6) 경			李柙
26	經部	小學類	字彙	1677(숙종 3) 경		왕명	
27	集部	別集類	長吟亭遺稿	1678(숙종 4)	威鳳寺		羅良佐
28	集部	別集類	二樂亭集	1682(숙종 8)	威鳳寺		申翼相
29	集部	別集類	滄浪先生集	1682(숙종 8)			申翼相
30	集部	別集類	孤竹遺稿	1683(숙종 9)	威鳳寺		李師命
31	集部	總集類	李氏聯珠集	1683(숙종 9)	威鳳寺		李師命
32	集部	別集類	白江先生集	1684(숙종 10)	威鳳寺		李師命
33	集部	別集類	竹西集	1684(숙종 10)	威鳳寺		李師命
34	集部	別集類	白洲集	1685(숙종 11)	威鳳寺		李世華
35	史部	詔令· 奏議類	受教輯錄	1689(숙종 15)		왕명	權是經
36	史部	政法類	大明集禮	1692(숙종 18)		왕명	洪萬朝
37	子部	醫家類	東醫寶鑑(2)	1692-1711(숙종 18-37)		왕명	
38	集部	別集類	忍齋先生文集	1693(숙종 19), 1712(숙종 38)	威鳳寺		朴慶後, 洪可相
39	集部	別集類	淸溪先生集	1695(숙종 21)	威鳳寺		李秀彥

2.3 18세기 경향성과 특징

18세기에 판각된 것으로 확인되는 완영책판은 총 73종으로, 17세기의 39종에 비해 2배 가까이 간행량이 증가되었다. 73종을 四부로 분류하면 경부 10종, 사부 24종, 자부 15종, 집부 24종이다. 유문별로 세분하면 경부는 춘추류 1종, 예류 3종, 사서류 2종, 소학류 4종이며, 사부는 정사류 1종,

편년류 4종, 별사류 1종, 잡사류 2종, 초사류 1종, 조령·주의류 5종, 전기류 3종, 보계류 2종, 정법류 5종이며, 자부는 유가류 13종, 병가류 1종, 천문·산법류 1종이며, 집부는 총집류 2종, 별집류 22종이다. 17세기와 18세기 간행물의 주제별 분포는 <표 3>과 같다.

<표 3> 시기별 완영 간행물의 주제별 분포

		17세기	18세기	합계	17세기	18세기	합계
경부	春秋類		1	1	4	10	14
	禮類	3	3	6			
	四書類		2	2			
	小學類	1	4	5			
사부	政史類		1	1	4	24	28
	編年類	1	4	5			
	別史類		1	1			
	雜史類		2	2			
	抄史類		1	1			
	詔令·奏議類	1	5	6			
	傳記類	1	3	4			
	譜系類		2	2			
	政法類	1	5	6			
자부	儒家類	2	13	15	11	15	26
	兵家類	3	1	4			
	農家類	1		1			
	醫家類	4		4			
	天文·算法類		1	1			
	類書類	1		1			
집부	總集類	2	2	4	20	24	44
	別集類	18	22	40			
	합계	39	73	112	39	73	112

<표 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18세기는 17세기에 비해 간행량이 대폭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간행이 이루어졌다. 17세기와 주제별 간행양상을 비교할 때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은 18세기에 역사서와 조령주의류 서적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런 부류의 책은 대부분 왕명에 따라 간행되었는데, 「자치통감」(3종)과 「사기평림」, 「동헌주의」와 같은 거질의 서책을 비롯해서 「천의소감」, 「명의록(언해)」 및 각종 운음과 사목 등 비교적 짧막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서적들이 포함되어 있다. 후자의 경우 왕위 계승의 정통성, 정치적 처벌에 대한 정당성, 왕권의 강화, 기강의 확립 등을 주제로 한 내용이 적은 분량 안에 함축적으로 담겨있기 때문에 왕실에서는 자신들의 의도를 최대한 빨리 배포하기 위해 완영을 비롯해 도내 가장 높은 판각 기술을 보유한 감영에 이들 서적의 직접적인 간행을 명했던 것이다. 전기류와 보계류를 제외한 역사서 총 19종 중 16종이 이처럼 왕명에 따라 감영에서 번각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유가류의 경우에도 총 11종 중 9종이 왕명에 의해 간행된 것이며, 그 중 「성리대전」을 제외하면 「삼강행실도」, 「경세문답」 등과 같이 분량이

적은 성리서와 교화서가 간행되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미 17세기에 간행되었던 『통감강목』과 『주자대전』이 18세기에 이르러서는 최소 2회 이상 補刻 또는 改刊되었고, 『동의보감』도 또 한차례 간행되었다는 점이다. 문집류는 총 24종이 간행되었는데, 시기별로 살펴보면 1710년대 5종, 1720년대 1종, 1730년대 2종, 1740년대 4종, 1750년대 1종, 1760년대 3종, 1770년대에 6종, 1790년대에 1종이다. 즉, 1710년대와 1770년대에 문집 간행이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영조 46-47년(1770-1771)의 주자대전(2회), 『속영세추모록』, 『어제추모록』과 영조 49년(1773)의 『황화집』, 정조 23년(1799)의 『양대사마실기』 등 왕명에 의해 간행된 문집류를 제외하면, 17세기 후반에 증가하기 시작한 문집 간행이 18세기 초까지는 지속되다가 점차로 감소되면서 1741년에서 1759년 경에 관각된 연안이씨 李海朝의 『鳴巖集』 간행을 끝으로 정조 연간에 이르러서는 완영의 책판 조에 단 한건도 수록되지 않고 있다.

이는 전반적으로 조선후기에 문집 간행이 늘어나던 현상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완영판 문집의 감소 요인은 조선후기에 문중이나 서원을 중심으로 한 문집 간행이 활성화와 고위 관료층 사이에서 교서관인서체철활자나 전사자 등과 같은 금속활자로 많은 양의 문집을 인출했던 것과 관련 지을 수 있다. 이상으로 살펴본 18세기에 간행한 서적을 시기순으로 배열하면 <표 4>와 같다.

<표 4> 18세기 완영간행물(간행시기순)

no.	四部	유문	정식서명	간행시기	책판보관처	간행방식	전라감사
1	集部	別集類	靑露集	1700년대			
2	史部	政法類	大明律	1702(숙종 28) 이전		왕명	
3	集部	別集類	百拙齋遺稿	1702(숙종 28)	威鳳寺		韓聖佑
4	經部	春秋類	春秋集傳大全[春秋四傳]	1703(숙종 29) 이전		왕명	
5	集部	別集類	竹陰先生集	1704(숙종 30)			
6	史部	傳記類	達城碑誌錄	1705(숙종 31)	威鳳寺, 松廣寺		徐文裕
7	集部	別集類	四佳集	1705(숙종 31)			徐文裕
8	集部	別集類	靜觀齋先生集(別集)	1706(숙종 32)	威鳳寺		李喜朝
9	集部	別集類	溪隱遺稿	1708(숙종 34)	華山書院		李光佐
10	經部	小學類	三韻通考[增補]	1718(숙종 44)			洪錫輔
11	集部	別集類	化堂先生集	1720(경종 1)	威鳳寺		申思喆
12	史部	編年類	資治通鑑綱目訓義(2)	1721(경종 1) 경		왕명	
13	史部	傳記類	二倫行實圖	1730(영조 6)		왕명	閔應洙
14	子部	儒家類	三綱行實圖	1730(영조 6) 경		왕명	閔應洙
15	集部	別集類	柏谷先祖詩集	1730(영조 6) 경			
16	史部	詔令·奏議類	東賢奏義	1734(영조 10)		왕명	柳復明
17	史部	詔令·奏議類	朱子封事	1734(영조 10) 경			
18	集部	別集類	簡易文集	1736-1740(영조 12-16)			

no.	四部	유문	정식서명	간행시기	책판보관처	간행방식	전라감사
19	經部	四書類	大學	1740(영조 16) 이전			
20	經部	小學類	大千字	1740(영조 16) 이전			
21	子部	儒家類	心經附註釋義	1740(영조 16) 이전			
22	子部	天文· 算法類	五行精記	1740(영조 16) 이전			
23	經部	四書類	中庸或問(或問中庸)	1740년 이전	南古寺		
24	集部	別集類	石州集	1740(영조 16)	威鳳寺		李東稷
25	史部	傳記類	同春堂先生年譜	1741(영조 17)	威鳳寺		權赫
26	子部	儒家類	宋季元明理學通錄	1741(영조 17)		왕명	權赫
27	史部	別史類	史略(初卷·二卷·三卷)	1740-1759(영조 16-35)			
28	集部	別集類	鳴巖集	1741-1759(영조 17-35)	威鳳寺		
29	子部	儒家類	道學正脉	1742(영조 18)	威鳳寺		權禧
30	經部	禮類	國朝五禮儀	1743(영조 19)		왕명	趙榮國
31	史部	譜系類	楊州趙氏族譜	1743(영조 19)	威鳳寺		趙榮國
32	子部	儒家類	諸儒標題註疏小學集成	1744(영조 20)		왕명	趙榮國
33	子部	儒家類	訓義小學大全, 諺解	1744(영조 20)		왕명	
34	子部	儒家類	性理大全	1744(영조 20)		왕명	趙榮國
35	集部	別集類	栗谷全書(2)	1744(영조 20)			
36	子部	儒家類	警民編	1745(영조 21)		왕명	
37	集部	別集類	朱子大全(2)	1745(영조 21)			鄭亨復
38	史部	編年類	資治通鑑綱目訓義(3)	1745(영조 25) 경		왕명	鄭亨復
39	史部	編年類	少微家塾點校附音通鑑節要	1759-1800			
40	史部	政法類	無冤錄[新註]	1746(영조 22)		왕명	洪昌漢
41	子部	兵家類	兵將圖說[續]	1750(영조 26)	石溪書院	왕명	韓翼譽
42	子部	醫家類	東醫寶鑑(3)	1754(영조 30)		왕명	趙雲達
43	史部	雜史類	闡義昭鑑	1756(영조 32)		왕명	
44	史部	編年類	資治通鑑綱目訓義(4)	1757(영조 33)		왕명	洪麟漢
45	經部	禮類	國朝喪禮補編	1758(영조 34)		왕명	洪麟漢
46	集部	別集類	屯菴集	1758(영조 34)	【南倉】		洪麟漢
47	子部	醫家類	新編醫學正傳(3)	1759(영조 35)		왕명	
48	史部	正史類	史記評林	1761(영조 37)			柳道源, 元景淳
49	子部	儒家類	經世問答	1762(영조 38)		왕명	
50	子部	儒家類	經世問答續錄	1763(영조 39)		왕명	
51	史部	編年類	資治通鑑綱目訓義(4)	1765(영조 41) 경		왕명	沈履之 또는 元仁孫
52	集部	別集類	厚齋先生集	1766(영조 42)			
53	史部	譜系類	豐山洪氏族譜	1768(영조 44)			洪樂仁
54	集部	別集類	潛齋稿	1768(영조 44)			洪樂仁
55	集部	別集類	潛齋稿	1768(영조 44)			洪樂仁
56	經部	小學類	三韻聲彙	1769(영조 45)			洪樂仁
57	集部	別集類	御製追慕錄	1770(영조 46)		왕명	
58	集部	別集類	續永世追慕錄	1770(영조 46)		왕명	金魯鎮

no.	四部	유문	정식서명	간행시기	책판보관처	간행방식	전라감사
59	集部	別集類	朱子大全(3), 續集, 別集, 遺集, 附錄	1771(영조 47)		왕명	鄭亨復
60	集部	別集類	蒼葭集	1773(영조 49)			元義孫
61	集部	總集類	皇華集	1773(영조 49)		왕명	元義孫
62	集部	別集類	月軒集, 附錄	1773(영조 49)			
63	史部	詔令· 奏議類	御製繪音	1776(정조 1)		왕명	
64	史部	雜史類	明義錄[續], 診解[續]	1777-1778(정조 1-2)		왕명	李普行
65	史部	政法類	欽恤典則	1778(정조 2)		왕명	鄭元始
66	史部	政法類	大典通編	1785(정조 9)		왕명	李在學
67	史部	詔令· 奏議類	加髡中禁事日繪音	1788(정조 12)		왕명	徐龍輔
68	經部	小學類	華東正音通釋韻考	1791(정조 15)		왕명	
69	子部	儒家類	朱書百選	1795(정조 19)		왕명	徐鼎修
70	經部	禮類	鄉禮合編	1797(정조 21)		왕명	李得臣
71	史部	政法類	無冤錄[增修]	1797(정조 21)		왕명	李得臣
72	史部	詔令· 奏議類	陸奏約選	1797(정조 21)	石溪書院	왕명	李得臣
73	史部	抄史類	史記英選[御定]	1797(정조 21)		왕명	李得臣
74	集部	總集類	梁大司馬實記	1799(정조 23)		왕명	鄭一祥

3. 사례를 통해 본 완영 출판의 일면

3.1 「자치통감」과 「주자대전」

3.1.1 자치통감

책판목록은 해당 서적을 인출하는데 필요한 종이를 기록한 ‘用入紙’라는 항목을 별도로 기재해두었다. 이는 중앙은 물론 각 지역에서 해당 서적을 구비하고자 할 때에 요즘의 가격표와 같은 역할을 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가장 많은 책판으로 간행된 서적은 무엇일까? 이는 바로 합천에 소장된 팔만대장경으로 모두 7639속 1장(각도①)~7723장(누판고)이 소요되었다. 이 외에도 사찰관으로서 안음의 화엄경(191속 10장), 삭령의 화엄경(150속), 영변의 화엄경(126속 10장)도 많은 양이 간행되었지만, 사찰관을 제외한 조선시대 최대의 출판물로는 청주판 송자대전과 완영판 칠서와 칠서언해, 완영판 자치통감강목, 완영판 주자대전, 영영판 사문유취, 합천판 남계집, 영영판 동문선, 안동판 성리대전, 영영판 주자어류, 고산판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순이다.

철서를 제외하면 『송자대전』에 이어 가장 많은 책판량을 자랑하는 책이 바로 본 절에서 언급하려는 『자치통감』(『資治通鑑綱目訓義』을 말함)이다. 총 59권으로 구성된 이 책을 인출하는데 필요한 종이는 160-167束이다. 현재까지도 『자치통감』 책판은 1,775개(3,548면)가 남아있는데, 책판의 간행 시기는 미상 또는 1700년대로 알려져 있다.

기록을 통해볼 때 완영관 『자치통감』은 보각을 포함해 조선후기에만 최소 4회 이상의 간행이 있었다. 먼저 1657년 이전인 17세기판이다. 이는 개인의 장서목록에 기재된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인 장서목록이란 李元楨이 1657년에 全州判官에 재임할 당시에 구비한 서책 목록인 『完府措備書冊』¹⁶⁾을 말하는데, 바로 여기에 『강목』이 기재되어 있다. 『완부조비서책』은 완영의 책판은 물론 인근에서 찍어낸 서적까지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에 적힌 『강목』은 완영 책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강목』이 거질이라는 점, 완영이 아닌 인근 지역에서 찍어낸 사실이 없었다는 점, 1721년(경종 1) 보각 당시에 책판이 이지러졌다는 보고가 있었던 점, 후술할 1735년의 기사에서 ‘판각한 지 오래되어 글자를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의 기록을 통해서 추정할 수 있다.

두 번째로 1721년의 보각판이다. 이는 書筵用 『강목』 책자 마련과 관련된 『승정원일기』의 기사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721년 9월 15일에 『강목』과 『소학』을 진강하기 위해 해당 책자를 교서관에 인출하라는 명이 내려졌다. 그러나 金昌集은 書筵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날짜에 맞춰 인출하기가 어려우니 전주에 있는 『강목』 책판 중에 刊缺된 것을 改刊하여 진강할 책자 1-2 권을 속히 인송하도록 분부해 달라¹⁷⁾는 요청을 하였다. 이를 보면 1721년 이전에 전주에 『강목』 책판이 존재했었고, 이러한 사실을 『책판치부책』(1740년)에 기록했던 것이다.

세 번째로 1745년(영조 21)의 보각판이다. 1721년에 보각된 책판은 20여년이 지나면서 또 다시 이지러지는 상황에 처하자 임금이 특별히 책판 관리를 명하였다. 이는 1735년(영조 11) 2월 8일의 경연에서 영조가 『강목』을 다시 강독하는 과정에 “前代之治亂, 聖祖正心之工”에 임하여 글자를 인식할 수 없고, “이미 판각된 지 오래되어 刊缺된 것이 없을 수 없고 앞으로는 더욱 잃어버리고 파손될 것이니 각별히 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호남 관찰사에게 분부하도록” 하기도 하였다.¹⁸⁾라는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왕명이 있는 지 9년이 지난 1744년(영조 20) 12월 15일에 이르러서는 왕이 『주자대전』과 『강목』의 책판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지를 물었고, 이에 원경하가 “판본이 있기는 하지만 방치해서 손상된 것이 많아 인출할 수 없습니다. 신이 개간하려고 했으나 부임한

16) 계명대학교 소장본. 청구기호는 ‘계명대((고) 011 완부조’임.

17) 『승정원일기』 경종1년(1721) 9월 15일 계묘조 30번째기사.

“昌集曰, 王世弟册禮後, 書筵即當開講矣. 進講綱目·小學, 自侍講院入啓, 令藝館印出云, 而臨筵之期已近, 勢難及時印出, 且卷秩浩多, 書冊此時印出, 亦涉有弊. 全州所在綱目板本刊漫者, 一邊改刊, 進講次一二件, 斯速印送事, 爲先分付, 而小學則春坊亦有前件, 而未免傷汚, 不合進講云. 綱目·小學, 內間似有所儲, 並爲內下, 則爲先以此進講, 似好矣. 上曰, 唯.”

18) 『승정원일기』 영조 11년(1735) 2월 8일 기유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체직되어 미처 일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약간의 판자를 갖추어 앞으로 개수하라는 뜻을 신임 감사에게 전달했다”는 대답을 전하였다. 이에 왕이 관찰사에게 신칙해서 즉시 개수하도록 하라는 명을 내렸다.¹⁹⁾ 이로부터 한 달여가 지난 이듬해 1월 17일에 副校理 李奎采가 “홍문관에 있는 『강목』은 일부가 없어져서 춘방에 있는 『강목』과 합쳐야 완질이 되니, 예전에 진강했던 책이라 하더라도 모양새가 구차합니다. 게다가 혹시라도 불시에 들여오라는 명이 생기면 한갓 책자를 합쳐서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완영의 판본이 매우 깨끗하다고 하니 완영에 1질을 인출하도록 해서 본관에 보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는 점으로 보아 원경하가 착수하려고 했던 『강목』 책판의 보수가 신임 관찰사로 왔던 鄭亨復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1757년판이다. 이는 『홍재전서』에 기록된 “공은 또 首相으로서 惠局을 관장하면서 곡식을 출자하여 완영에 있는 紫陽의 『綱目』 印板을 다시 만들기도 했는데, 주연에 올린 말이 바로 그 본으로서 몇백 년 동안 드물게 있었던 것이다.”²⁰⁾라는 내용에서 유추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공’은 홍봉한(1713-1778)을 지칭하며, 그가 선혜청 당상[1756년 윤9월 22일 제수]으로 재직하던 무렵에 『강목』이 다시 간행된 듯하다. 1757년 9월에서 12월 사이에 전라도관찰사를 역임했던 인물은 바로 홍봉한의 아우인 洪麟漢(1722-1776)으로 지방관이 혈연, 지연, 학연 등을 매개로 서적을 간행하는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1757년 무렵에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을 정리하면 완영판 『자치통감』은 1657년 이전인 17세기판, 진강책자 마련을 위해 보각한 1721년판, 원경하의 추진에 의해 보각된 1745년판, 홍봉한의 전라도 관찰사였던 아우 홍인환의 힘을 빌려 간행한 1757년판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3.1.2 주자대전

현재까지 알려진 『주자대전』의 완영판은 編題面에 “辛卯入梓完營藏板”이라고 새겨진 간기를 지닌 판본으로, 이 중 1,471개(2,942면)의 책판이 전북대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²¹⁾ 그러나 문헌기록을 살펴보면 신묘년 판본 이 외에도 최소 3차례 이상이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며, 간행시기는 1635년(인조 13), 1745년(영조 21), 1771년(영조 47)으로 짐작된다.²²⁾

가장 먼저 확인되는 시기는 1635년 4월 24일에 전라도 관찰사 元斗杓가 올린 다음 상소를 통해 알 수 있다.²³⁾

19) 『승정원일기』, 영조 20년(1744) 12월 15일 무자조[무오조].

20) 『국역홍재전서』 권11, 序引 4, 翼靖公奏藁典禮類叙.

21) 홍성덕, 김철배, “전주향교 完營冊板 보존현황 및 활용방안,” 『고문화』, 65(2005), 81-106.

22) 따라서 『책판치부책(1740)』에 기재된 책판은 1635년판이며, 『완영책판목록』(1759)에 기재된 책판은 1745년판이며, 나머지 18세기 후반이후에 작성된 책판목록에 수록된 책판은 1771년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3) 『승정원일기』 인조13년 4월 24일 계묘조.; 한국고전번역원(<http://db.itkc.or.kr>) 번역 인용.

전라도 관찰사 원두표가 상소하기를, “... 삼가 생각건대 『주자전서』는 옛 성인들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후세의 학자들에게 가르쳐 전하는 일과 치단의 도리에 관계되고, 그 論著는 바다가 받아들이는 것과 같고 땅이 실어 주고 있는 것과 같아 모두 다 갖추고 있으니, 진실로 讀習할 만하고 하루도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다만 이 책이 세상에 통행되는 것이 극히 희귀합니다. 지난 宣廟朝 元年인 을해년에 교서관에 명하여 인출하도록 하였는데 그 당시에 板刻을 쓰지 않고 鐵活字를 만들어 인쇄하였으므로 곧바로 解板함에 따라 널리 배포되지는 못하였습니다. 게다가 변란을 겪은 뒤에 산실되어 남은 것이 없고 이 책을 보존한 사람이 1,000명에 1명쯤 됩니다. 그러므로 선비로서 본 사람이 대체로 적고 혹 전해진 것도 全帙이 아니니 또한 어찌 斯文의 불행이 아니겠습니까. 신이 일찍이 이에 대해 분개하였습니다. 신이 비록 평소 학문을 하는 방도에는 어둡지만 성현이 되기를 바라고 사모하는 마음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양 이 책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들으면 그때마다 구하였습니다. 구하여 다행히 얻으면 원근을 따지지 않고 반드시 가져왔습니다. 이와 같이 수년 동안 하여 겨우 2, 3본(本)을 얻었는데 완질이 아니기도 하였고 혹 권권이 유실된 것이었습니다. - 8자 원문 빠짐 - 아침저녁으로 울부짖고 사모한 끝에 한 집안의 자제를 이끌고 - 9자 원문 빠짐 - 落篇을 수습하고 여러 본을 모아 드디어 하나의 완전한 책을 이루어 책상 안에 두어 간행할 본으로 삼았습니다. 신이 脫喪한 뒤에 외람되어 성상의 은혜를 입어 本道의 관찰사가 되었는데 신이 다스리는 道는 物役이 조금 넉넉하므로 신의 숙원을 거의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이 도입한 뒤에 즉시 工人을 모으고 資材를 모아서 이 책을 刊刻하여 中外에 널리 배포하여 이 책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집집마다 소장하도록 하는 것이 신의 본의였습니다. 그러나 마침 詔使의 행차와 田政이 전후로 겹쳐 도착하는 일을 만나 그 일에 달려가 급하게 서두르느라 이 일에 미칠 겨를이 없었습니다. 비록 그렇기는 하지만 호남 사찰의 승도는 모두 각수여서 수십 인에서 수백 인을 소집하여 이 간행하는 일을 하도록 하고 쓰이는 板木도 또한 수단껏 마련하여, 역사를 시작한 지 5개월여 만인 지금에야 비로소 공역을 마쳤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인쇄하여 粧綴해서 6건을 올려 보내 乙夜에 성상께서 보실 것에 대비하도록 하고, 또 2건을 올려 동궁이 덕을 향상시키는 工具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각 1건을 옥당과 춘방에 나누어 보내 儒臣이 토론하고 啓沃하는 자료로 삼도록 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원두표의 상소문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1635년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이괄의 난과 정묘호란 등의 병화로 인해 수많은 서적이 유실되어 없어진 상황이었다. 이 때에 원두표는 전라도관찰사로 부임하자 지역의 물력이 다른 곳에 비해 넉넉하고, 사찰에 있는 승도가 모두 각수라는 이점을 활용해 각수 수십 인에서 수백 인을 소집하고 판목을 마련하여 『주자대전』의 간역에 착수하였다. 시작한 지 5개월이 지나 간행이 완료되었다고 한 점을 통해볼 때, 간행시기는 1634년 12월~1635년 4월로 추산된다.

다음으로 1745년의 간행 관련 기록이다. 1733년 6월에 호남에 다녀온 이귀휴가 완영판 『주자대전』에 대해 “이지러지고 깨진 것이 7-8권, 없어진 판이 60여장”이라고 언급하는 한편 “지금 간행을 시작하면 완성하는데만 수년이 걸려서 그 사이에 남은 것마저도 모두 잃어버리게 될 것”이니, “지금 이 비록 흥년이기는 하지만 이지러진 것은 보수하기 어렵지 않고 없어진 판은 53개의 읍에 분배한다면, 각 읍당 1장에서 2장만 판각하면 되니 하루 이틀밖에 걸리지 않는 일”이라고 진헌하였다. 아울러 “근래에 수령된 자들이 이런 일들에 마음을 두지 않고 『주자대전』은 물론 각 읍에 있는 다른 책판까지도 아랫사람이 훔쳐가고 훼손하는 것을 방임하고 있으니, 도신과 도사들이 순시할 적에 楮田이나 軍器 등을 살피는 예에 따라 책판을 대조·점검하여 유실된 판이 생기면 수령을 검색하고 해읍의 하리도 치죄해 달라”는 요청을 아뢰었다.²⁴⁾

24) 『승정원일기』 영조 9년(1733) 6월 4일 계축조.

이로부터 10여년이 지난 1745년 4월 5일에 『주자서절요』의 간행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주자대전』을 지금 막 완영에서 개간하여 印進했으니 『주자서절요』는 영남에서 간행하라는 명이 내려진 점으로 보아,²⁵⁾ 1745년경에 이루어진 또 한차례의 간행을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1771년(영조 47)의 간행 관련 기록이다. 뜻하지 않은 화재로 완영에 있던 『주자대전』과 영영에서 간행한 『주자어류』가 모두 소실되자, 1770년 10월 20일에 홍계희가 자신이 교정한 책을 토대로 兩南에서 새롭게 간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주자어류』는 권질이 『주자대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 책 역시 140권에 달하는 거질이어서 용입지만 약 106-107속 정도가 소요되었다. 게다가 당시 책을 간행하는 일은 엄청난 민폐가 따르고 감영이 각 읍에 분정할 적에 판 하나의 가격이 많을 때는 50-60냥에 이르렀기 때문에,²⁶⁾ 한 도에서 거질의 두 책을 판각하기에는 무리가 따랐다. 따라서 『주자대전』은 기존에 판각이 이루어졌던 완영에, 『주자어류』는 영영에 분산, 간행하라는 명이 내려지게 된다. 이 때 간행한 책판이 바로 전북대학교 박물관에 보관된 목판으로, 완영에서 적어도 3번째로 이루어진 『주자대전』 책판이 된다.

『주자대전』은 중앙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완영에서 유일하게 간행되었다. 간행시기는 1635년(인조 13), 1745년(영조 21), 1771년(영조 47)에 적어도 3회 이상으로 추정된다. 책판목록에 따르면 본편 100권, 별집 11권, 속집 10권의 거질로 구성된 『주자대전』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135속에서 155속의 종이가 필요했다. 책판의 크기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용입지의 양은 책판량과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주자대전』의 간행은 『자치통감』에 이어 완영에서 이루어진 최대의 출판사업으로 간행시기를 전후로 수많은 인적, 물적 자원이 투입되면서 지역 경제에 파급효과를 가져왔을 것으로 짐작된다.

3.2 『동의보감』과 의서 간행

현재까지 알려진 『동의보감』의 간인본으로는 1613년 내의원 목활자본, 완영갑술본, 영영갑술본, 영영기해본 등이다. 그러나 문헌기록을 추적해보면 이 판본을 비롯해 완영에서 간행된 『동의보감』은 1613-1648년, 1692-1711년, 1754년에 최소 3회 이상이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²⁷⁾

25) 『승정원일기』 영조 21년(1745) 4월 5일 정미조.

26) 『승정원일기』 영조 21년(1745) 4월 5일 정미조.

湖南審理使 홍국영이 말하기를 “책을 간행하는 일은 매우 민폐가 됩니다. 감영이 각 읍에 분정하는데 판 하나의 가격이 많게는 50-60냥에 이릅니다.”라고 하였다.

27) 『동의보감』의 간행연도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이견이 보인다. 그 중 최근 연구된 성과는 다음과 같다. 봉성기, “『東醫寶鑑』 보존과 현대적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제15권 1호(2009), 31-42.; 박훈평, “17-18세기 조선 간행 『동의보감』 목판본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8권 1호(2015), 25-37.; 박현규, “『東醫寶鑑』의 국내책판 간행시기와 중국본 역유입 배경 고찰,”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5권 2호(2016), 29-56.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봉성기가 제시한 총 5종의 판본은 ① 광해군 5년(613) 초간본 ② 광해·효종연간(1614~1659) 간행본 ③ 효종 10년(1659) 영영 간행본 ④ 영조 30년(1754) 영영간행본 5) ⑤ 순조 14년(1814) 완영 중간본이다. 박훈평이 제시한 총 7종의 판본은 ① 1613년 초간본 ② 1648년 이전 전남관찰영간본 ③ 1711년 호남관찰영간본 ④ 1779년 기해 영영개간본 ⑤ 1814년 갑술 영영개간본 ⑥ 1814년 갑술 완영중간본 ⑦ 19세기 중후반 갑술완영중간본

먼저 1613-1648년본이다. 이는 1648년 10월 14일에 시강원에서 요청한 제도의 책판 중에서 전라도의 「小學諺解」, 「孔子通記」, 「小學」, 「十九史略」, 「三韻通考」, 「東醫寶鑑」, 「醫學入門」 등²⁸⁾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기록을 통해 1648년 이전에 완영판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간행시점은 불분명하나 내의원 목활자본이 나온 1613년부터 위 기사가 작성된 1648년 사이로 추정할 수 있다. 아울러 「완부조비서책」(1657)에도 「동의보감」이 기재되어 있어, 전주판판으로 왔던 이원정이 감영에 구비된 이 책판을 이용해 인출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1692-1711년본이다. 1692년 10월 13일에 전라감사에게 「동의보감」을 다시 開刊하라는 명이 내려진다.²⁹⁾ 이로부터 20년이 지난 1711년 2월 18일에 「동의보감」을 改刊하여 20권을 진상하였다.³⁰⁾ 즉 1692년부터 1711년 사이에 최소한 한 차례의 간행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끝으로 1754년본이다. 이는 다음의 1753년 9월 23일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都提調 金在魯가 말하기를 “「동의보감」은 가장 긴요한 책이라 매번 勅使가 오면 여러 권을 인출해 보내었기에 중국에 널리 퍼져있습니다. 판본이 호남감영에 있지만 舊板이 이지러져서 印本을 목판에 붙여 다시 간행[改刊]해야 합니다. 그러나 외방의 각수들은 문자를 이해하지 못해 획이 비슷한 글자로 잘못 새긴 것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한 장 안에 틀린 글자가 십 수개일 뿐만 아니라 고금에 없는 글자도 많아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중국에 보내면 필시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방백이 내려갈 때에 신이 내의원에서 다시 필사한 것을 보낼 터이니 구판을 도려내고 속히 개간해야 한다는 뜻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내려간 후에 과연 이미 물력을 마련했다고 내국에 통보하였기에 전 도제조가 아뢰려고 했지만 미처 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호조에 지필목을 배정하게해서 사자관이 글씨를 나눠쓰고 본원의 의관이 충분히 교정한 후에 내려보내 개간하여 진상하도록 하며, 본원에 비치할 건수도 참작해서 印送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자, 상이 허락하였다. 김재로가 말하기를 “「증보만병회춘」도 의서 중에 긴요한 책으로 작년에 鑄字로 약간 권을 인출했으나 지금 남아있는 것이 매우 적다고 합니다. 이것은 영남으로 하여금 開刊하도록 하되, 「동의보감」의 사례와 같이 필사하고 교준해서 내려보내 개간하게 한 후에 진상하고 본원에 비치할 건수를 인송하게 하는 것도 모두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자 상이 허락하였다.³¹⁾

위 기록은 「동의보감」의 간행시기는 물론 지방 인쇄문화의 수준 및 중앙에서 지방 감영에 서적 간행을 명할 적에 어떠한 방식으로 행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동의보감」과 같은 의서는 생명과 직결되므로 약간의 오자도 허용되어서는 안되므로 내의원의 관원이 특별히 교정한 후 인출했던 서적이었다. 일찍부터 중국에 알려져 사신이 올 때마다 요구하는 서적이기도 하여 그만큼 수요가 많았기에 책판이 쉽게 이지러졌다. 따라서 기존에 인출된 간본을 목판에 뒤집어 붙이는 방식으로 다시 간행해야만 했는데, 지방에 있는 각수들의 문자 해독 수준이 낮아 유사한 글자로

의 번각본이다. 박현규가 제시한 총 5종의 판본은 ① 1613년 내의원 목활자본 ② 1635년 이전 전라도간본 ③ 1694년 갑술 완영중간본 ④ 1659년 또는 1719년 기해 영영개간본 ⑤ 1754년 갑술영영개간본이다.

28) 「승정원일기」 인조26년(1648) 10월 14일 을사조.

29) 「승정원일기」 숙종18년(1692) 10월 13일 무자조.

30) 「승정원일기」 숙종37년(1711) 2월 18일.

31) 「승정원일기」 영조29년(1753) 9월 23일 을해조.

잘못 새기거나 아예 없는 글자로 만들어 버리는 등의 문제가 비일비재했다. 따라서 특별히 호조의 물력을 내어 지필묵을 갖추게 한 후 寫字官이 정교하게 필사하고 醫官이 충실히 교정한 정서본을 내려보내 새롭게 간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같은 날에 김재로는 「동의보감」과 「증보만병회춘」을 영영에서 간행하도록 요청하여 윤허를 받기도 하였다.³²⁾

「증보만병회춘」 역시 「동의보감」의 사례와 같이 사자관이 정서하고 관원이 교정한 대본을 토대로 간행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것처럼 국가에서 활자본을 내려주어 번각하도록 하는 방식 이외에도 이처럼 직접 정서하고 교정한 초본을 내려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례로 1629년에 변란으로 인해 중지되었던 「시전」을 다시 인출하려고 할 적에 正書한 1권을 전라도에 보내 卷數를 나누어서 각 읍에 배포하게 하여 출간하도록 하였고,³³⁾ 1692년에는 「대명집례」를 간행할 적에 예조와 홍문관에 흠어져 있는 서적을 취합한 후 1684년에 성균관에서 경서를 중간할 때에 교정관이 고증했던 사례에 따라 옥당이 교정을 주관하여 1통을 정사한 후에 양남의 감영에 분송하여 간행하도록 하였다.³⁴⁾ 또한 1734년(영조 10)에는 「동현주의」와 「속경연고사」를 전라감사에게 간행할 적에 완영에서 직접 베껴서 간행하면 교수하기가 어려울 듯하니 홍문관에서 간본을 繕寫하고 오류를 교정한 사본을 내려 보내기도 하였다.³⁵⁾

이상을 통해 완영에서는 1613-1648년, 1692-1711년, 1754년에 최소 3회 이상의 「동의보감」이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책판과 판본이 모두 남아있는 완영판 갑술본의 간기는 ‘歲甲戌仲冬 內醫院校正 完營重刊’이며, 여기서 말하는 갑술 중동은 바로 필사와 교정이 시작된 1753년 9월의 이듬해인 1754년 11월을 의미한다. 그러나 ‘갑술중동’이 내의원에서 교정이 완료된 시점을 말하는 것인지, 각 감영에서 간행이 완료된 시점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호하기는 하지만, 만일 교정이 완료된 시점을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늦어도 1755년 무렵에는 간행이 완료되었을 것이다. 이 판본의 간기에 사용된 ‘중간’이라는 용어는 갑술본에 앞서 이미 책판이 간행되었다는 의미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영영판은 현재 간기면에 ‘歲甲戌仲冬 內醫院校正 嶺營開刊’과 ‘己亥仲冬 內醫院校正 嶺營開刊’이 새겨진 2종의 판본이 남아있다. 영영판 갑술년은 상술했듯이 1753년에 김재로가 『증보만병회춘』과 함께 영영의 간행을 요청하여 윤허를 받았다는 점과 1754년의 완영본과 판형이 매우 유사한 점으로 보아 완영판 갑술본과 같은 시기인 1754년으로 보인다. 영영판과 관련된 책판목록상의 기록은 「책판치부책」(1740)이나 「완영책판목록」(1759)에는 보이지 않고 「누판고」(1796)에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 책판의 상태는 ‘刑’ 즉 이지러진 상태였다. 즉 1754년에 간행된 영영본은 1796년의 책판조사 당시에 이미 40여년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책판이 이지러진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기해 영영본의 간행시기와 관련해서는 1659년, 1719년, 1779년으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데, 기해판이 영영판

32) 「조선왕조실록」, 영조29년(1753) 9월 23일.

33) 「승정원일기」, 인조7년(1629) 8월 7일 기미조 10번째기사.

34) 「승정원일기」, 숙종18년(1692) 1월 10일 경신조 12번째기사.

35) 「승정원일기」, 영조10년(1734) 9월 5일 정축조 25번째기사.

갑술본에 비해 후대의 판형을 띄고 있는 점에서 볼 때 1839년으로 추정된다.

조선후기 책판목록에 수록된 전국 의서 간행 현황은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경상도 35종, 전라도 12종, 황해도 2종, 함경도 1종, 해민서 2종이다. 이상을 통해 18세기 이전 경상도 내 의서의 간행 횟수와 종류가 타도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5> 조선후기 의서 간행 현황

지역	장판처		서명	간행시기	용입지(대자)	
경상도	경주	1	1	救荒撮要	1554	
		2	2	臞仙活人心法	1550	
		3	3	丹溪先生醫書纂要	1642	5束 10丈-5束 17張
		4	4	補註黃帝素問		22束 5張
		5	5	新刊補註釋文黃帝內經素問		22束-33束 5張
		6	6	醫眼集方	1600	10張
		7	7	拯急遺方		2束 5張
		8	8	增補萬病回春	1753	1束 2丈
		9	9	瘡疹方	1518	3束 16張
	밀양	10	10	產要集	1568 이전	4束
		11	11	新刊補註銅人腧穴鍼灸圖經	1568 이전	8束
	영영	12	12	東醫寶鑑(2)	1754	34束 10張~49束 17張
		13	13	東醫寶鑑(3)	1839	41束 17丈
		14	14	痘科彙編	1807	6束
		15	15	痘疹會通	1834	4束 10丈~7束 5張
		16	16	新刊註釋素問玄機原病式	1759 이전	2束
		17	17	新編醫學正傳	1796 이전	17束 19張 1束~21束
		18	18	增補萬病回春	1754	19束 17張~43束 17張
	상주	19	19	痘瘡集		1束 15張~2束 5張
	선산	20	20	新刊補註釋文黃帝內經素問	1568 이전	22束 5張
		21	21	增註太平惠民和劑局方	1585 이전	29束
	성주	22	22	壽親養老書	1577 이전	12束 12張
	안동	23	23	痘瘡集	1740 이전	3束 16張~5束 16丈
	예천	24	24	丹溪先生醫書纂要	1585 이전	5束 6張
	거창	25	25	痘瘡集		
	곤양	26	26	救急簡易方	1523	1束 15張
	진주	27	27	簡易癰疽方	1525-1585	
		28	28	臞仙活人心法	1568-1585	4束
		29	29	山居四要	1568 이전	3束
		30	30	新刊補註銅人腧穴鍼灸圖經	1568 이전	
		31	31	神應經	1568 이전	3束 12張
		32	32	御醫方	1568 이전	5束 14張
		33	33	永類鈴方	1438	46束 7張
	합천	34	34	救急簡易方	1489	43束 10張
		35	35	纂圖方論脈訣集成	1568 이전	6束 8張

지역	장판처			서명	간행시기	용입지(대자)
전라도	금구	36	1	經驗方	1740 이전	2束 4丈
		37	2	痘腫方	1759 이전	1束 16丈
		38	3	痘瘡集		
		39	4	治腫秘方	1587	13丈
	금산	40	5	經驗方	1740 이전	1束 10丈-束 10丈
	완영	41	6	東醫寶鑑(2)	1692-1711	38束~46束
		42	7	東醫寶鑑(3)	1754	
		43	8	新編醫學正傳(3)	1759	17束 19張 1束~20束 13張
		44	9	診解胎產集要	1608-1740	3束 1丈-3束 3丈
		45	10	醫學入門	1648 이전	30束-35束
	태인	46	11	救荒撮要(新刊救荒撮要)	1806	1束
제주	47	12	新編集成馬醫方	1633		
함경도	함영	50	1	廣濟秘笈	1790	7束 5張
황해도	해영	51	1	救荒撮要	1584	1束 7丈-10張
		52	2	濟飢活民方		3張
한성부	혜민서	48	1	新刊補註銅人腧穴鍼灸圖經		3束 14張
		49	2	纂圖方論脉訣集成		5束 15張 1束

그러나 경상도에 소장된 의서 책판은 상당수가 『고사촬요』에 수록된 책판과 중복된다. 이는 17-18세기에 간행된 것이 아닌 16세기 이전에 간행된 서적을 의미하므로, 17세기 이후에 간행된 의서만 고려하면 경상도는 영영 7종, 경주 3종, 안동 1종이, 전라도는 완영 5종, 금구 2종, 금산 1종, 태인 1종이, 함경도는 함영 1종이다. 즉 완영이 영영과 더불어 조선후기 의서의 공급과 유통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완영의 경우에는 주로 17세기 초에서 18세기 중반에 이르는 시기에 의서의 간행이 활발하다가 18세기 중반 이후에는 간행 기록이 보이지 않는 반면에, 영영의 경우에는 18세기 중반에서 19세기 중반에 집중적인 간행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용입지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영영과 완영을 제외한 기타 지역에서는 『동의보감』, 『신편의학정전』, 『의학입문』과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적은 분량의 의서를 간행했다.

4. 맺음말

본고는 완영 출판문화의 다양성을 규명하기 위한 시론적인 연구로서 14종의 책판목록을 토대로 16~17세기에 간행된 완영본 112종을 제시하고, 해당 서적의 간행연도를 비정한 후 시기별 완영 출판의 경향성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상징성을 지니는 『자치통감』, 『주자대전』, 『동의보감』을 중심으로 해당 서적의 간행 내력을 추적함으로써 완영판의 가치를 제고하고 완영 출판의 다양성을 모색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17-18세기 완영 인쇄 문화의 경향성에 관한 내용이다. 완영책판은 17세기 39종, 18세기 73종으로 18세기의 간행량이 대폭 증가되었다. 주제별로 살펴보면 17세기에는 문집의 비중이 압도적인 반면, 18세기에는 전 분야에 걸쳐 고루 간행이 이루어졌다. 특히 문집간행을 살펴보면 17세기에는 전라감사로 임명된 노론계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1680년대에 간행량이 증가한 반면, 18세기에는 1710년대와 1770년대가 두드러진다. 그러나 왕명에 의해 간행된 문집류를 제외한 사적인 성격의 문집간행은 17세기 후반에 증가하기 시작하여 18세기 초까지 지속되다가 점차 감소되면서 18세기 중반 이후에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요인으로 조선후기 문중이나 서원을 중심으로 문집 간행이 활성화되고, 고위 관료들은 다양한 금속활자로 문집을 인출했던 상황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완영본을 사례로 한 인쇄 문화의 다양성에 관한 내용이다. 『자치통감』, 『주자대전』, 『동의보감』은 완영을 대표하는 서적으로 17세기에 왕명에 의해 간행된 이후 여러 차례 보각, 개각되었다. 『자치통감』은 1657년 이전인 17세기판, 진강책자 마련을 위해 보각한 1721년판, 원경하의 추진에 의해 보각된 1745년판, 홍봉한의 전라도 관찰사였던 아우 홍인환의 힘을 빌려 간행한 1757년판이 존재했다. 『주자대전』은 1635년, 1745년, 1771년에 걸쳐 적어도 3회 이상 간행되었다. 『자치통감』과 『주자대전』의 간행은 완영에서 이루어진 최대의 출판사업이라고 볼 수 있으며, 간행시기를 전후로 수많은 인적, 물적 자원이 투입되면서 지역 경제에 과급효과를 가져왔을 것으로 짐작된다. 『동의보감』은 1613-1648년, 1692-1711년, 1754년에 최소 3회 이상이 간행되었으며, 완영은 영영과 더불어 조선후기 의서의 공급과 유통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본고는 책판목록에 누락된 서적이거나 조선후기 완영의 목활자인쇄 등은 배제되어 17~18세기 완영 출판문화의 전모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니지만, 지역의 출판문화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방법론과 시각을 일부나마 제공했다는 점에 의의를 둔다. 아울러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현전 책판과 접목시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완영 인쇄·출판문화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모습을 재현하고, 나아가 전주,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완영이 지녔던 조선시대 전국 출판의 메카로서의 위상이 다시금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국사편찬위원회 웹.

『承政院日記』.

『完府措備書冊』(계명대(고) 011 완부조).

『고문서집성(48) - 전주 단목 진양하씨 창주후손가편(2)』.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00.

한국고전적중합목록시스템,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korcis>>.

- 한국고전종합DB, 한국고전번역원. <<http://db.itkc.or.kr>>.
- 강혜영. “朝鮮朝 全州地方의 木版印刷 文化考.” 『국회도서관보』 20(1983). 47-59.
- 김소희. “조선전기 전라도의 출판문화 연구 - 지방관서의 간행양상을 중심으로.” 『서지학연구』 제62집(2015. 6). 357-392.
- 김치우. 『고사촬요 책판목록과 그 수록 간본 연구』 (초판2쇄). 서울: 아세아문화사, 2008.
- 봉성기. “『東醫寶鑑』 보존과 현대적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제15권 1호(2009). 31-42.
- 박현규. “『東醫寶鑑』의 국내책판 간행시기와 중국본 역유입 배경 고찰.”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5권 2호(2016). 29-56.
- 박훈평. “17-18세기 조선 간행 『동의보감』 목판본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8권 1호(2015). 25-37.
- 손계영. “지방관과 선조 문집 간행.” 『영남학』 15(2009). 229-269.
- 옥영정. “조선시대 完營의 인쇄문화에 대한 고찰.” 『서지학연구』 제50집(2011). 433-470.
- 이동희. 『조선시대 전라도의 감사·수령명단 -전북편-』. 전주: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1995.
- 이동희. “전라도 완영책판의 역사문화적 의미와 활용방안.” 『전주향교 장관각 목판정리사업 최종보고서』 (2005).
- 이태영. “전라감영의 인쇄문화가 지역사회에 끼친 영향.” 『향토사연구』 13·14(2002). 131-138.
- 이태영. “완판본과 완영목판.” 『기록문화의 땅, 전주』. 전주: 전주역사박물관, 2006. 49-76.
- 정형우, 윤병태 편. 『韓國冊板目錄總覽』.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 정형우, 윤병태 편. 『韓國의 冊板目錄(上)·(下)·(補遺·索引)』. 서울: 보경문화사, 1995.
- 조정화. “영남지방 책판목록에 대한 고찰 - 작성시기 고증을 중심으로 -.” 『도서관』 51 (1996). 95-125.
- 최지선. “조선시대 湖南觀察營本에 관한 서지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대학원. 2007.
- 홍성덕, 김철배. “전주향교 完營冊板 보존현황 및 활용방안.” 『고문화』 65(2005). 81-106.

